

하루를 시작하며



허경자
대경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싸늘해진 날씨 만큼이나 요즘의 경제 상황은 냉랭하다. 장기간 지속되는 미중무역갈등이나 한일경제보복분쟁 같은 국내외적 이슈는 차제하더라도 언론훈마다 쏟아내는 부정적 경제전망들로 인해 향후 제주경제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점점 깊어만 간다.

내가 근무하는 회사도 예외는 아니다. 전기, 소방, 통신분야 설계 감리 등의 엔지니어링이 주업종이다보니 건설경기의 위축에 일거리가 확연히 줄었다. 그동안 제주에서 추진되던 헬스케어단지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사업이 수년째 중단중이고 신규 프로젝트 역시 땅값 상승과 인허가의 난

갈등

제로 추진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언제 썸이든 경기가 풀릴 것인가. 이는 기업뿐 아니라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걱정이고 바람이 돼 버렸다. 유례없던 건설 호경기와 이주열풍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던 제주도, 그로인해 도민들의 경제체감온도는 더더욱 낮을 수밖에 없는지 모른다.

이런 복잡한 속에서 나는 속없는 일일지도 모르는 행사를 가졌다. 주5일제로 생성된 이틀간의 휴무와 하계 집중휴가 성과자에 대해 포상을 위한 사진콘테스트를 개최한 것이다. 후자는 휴가를 가는데 무슨 성과나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일한 자여 떠나라'에 설레었던 우리가 아니던가. 직원들에게 '신나게 노는 자여 일도 잘 한다'라는 또한번의 설렘을 전하고 싶어 오래전에 시작한 이벤트를다. 재미있고 활기차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놀라는 인종상을 모아 임직원이 감상하고 포상하는 한 시간의

만남. 우리는 지나간 휴가의 아쉬움보다 앞으로 다가올 휴가를 고대하는 흥분으로 희망의 싹을 틔웠다.

오래전 경영책임을 맡으며 그저 어머니 마음으로 시작했던 시시콜콜한 일들, 나는 그들로 인해 가족친화기업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분에 넘치는 칭찬도 들었다. 하지만 영리추구가 우선인 기업에서 업무이외의 여러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실현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회사가 자진해서 휴가 계획을 받고, 맘편히 쉬도록 업무적 배려도 해야 한다. 휴가 사진도 접수해 심사하고 모두가 감상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행사기획도 세워야 했다. 게다가 직원들 대부분이 남성 엔지니어인 회사에서 스스로 휴가사진 올리기를 바란다는 것은 매우 어색하고 낯선 문화였다.

올해는 유달리 내 고민이 많았다. 경기침체의 중압감과 빈약한 매출을 목전에 두고서 직원들을 쫓아다니며

사진콘테스트에 참여하라 권유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일인지, 매출감소 등의 위기극복 방안을 내보라 하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닌지 나는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맸다. 그러나 심사를 진행하면서 처갓집을 방문하고, 아이들을 보살피고, 홀로 여행을 떠났던 직원들의 사진첩 모습에 어느새 나는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앞이 보이지도 않는 경제난국이라는데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건가 내 스스로 경계심도 가져봤지만 사진 속 그들은 연실 나를 보며 웃었고 나는 어느새 그들의 미소로부터 힘을 얻고 있었던 것이다.

'작은 것을 아껴 큰 것을 이루자, 배움에 투자해 사람을 키우자, 보이지 않는 공익을 꾸준히 실천하자'. 기술자도 아닌 사람이 엔지니어링회사에 들어오면서 가졌던 각오, 그렇게 임해 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그때까지. 스치는 갈바람이 싸늘했지만 나는 훈훈한 11월 속에 있었다.

사설

오라관광단지 언제까지 질질 끌 것인가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자칫 끝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자본검증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가운데 공론화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최종 승인단계에서 도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답변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8일 도정질문에서 양영식 의원의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후속조치 질문에 최종 승인단계에서 도민사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양 의원은 "오라관광단지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제주 관광개발사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기에 대한 승인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향후 이 사업에 대한 공론화 추진의향을 물었습니다. 이에 원 지사는 "의회 심사가 끝나면 도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공론화 추진 의사를 밝혀 파장이 예상됩니다.

진적이 안되고 있습니다. 자본검증 문제로 마냥 시간만 끌고 있는 형국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자본검증을 하느라 2년 6개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것도 모자라 도민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공론화 카드를 꺼내려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대규모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보다 신중을 기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양 의원의 지적처럼 오라관광단지는 한라산 자락에 추진해 제주사회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많은 우려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런만큼 오라관광단지사업은 더 이상 질질 끌어서 안됩니다. 이쯤에서 행정의 횡포도 멈춰야 합니다. 투자자를 우대하고 배려하지 않는 못말장정 발목을 잡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이 아닙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로 환경문제 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면 가늠고 불허하며 공론화 추진 의사를 밝혀 파장이 예상됩니다.

현재 오라관광단지사업은 전혀

빨라지는 고령화... 여가복지시설은 후퇴

제주지역의 고령화 시계가 빨라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여가복지시설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는 2017년에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데 이어 수년 내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복지관과 경로당, 여가활동과 학습프로그램 등 관련 시설은 오히려 후퇴하는 실정입니다. 전국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정책 지원과 관심이 절실합니다.

노인 인구비중이 늘면 여가복지시설도 확충이 기대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엇그제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노인 여가복지시설 수 60세 이상 노인 1000명당 3.3개소에 그쳤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 증감률로 보면 제주도는 -5.7%로 전국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정책 지원과 관심이 절실합니다.

유엔은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 '초고령사회'로 분류합니다. 제주지역은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9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5%에 달합니다. 2017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4%로 고령사회 진입 이후 그 비율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27년이면 65세 인구 비율이 20.1%, 2039년엔 30.7%로 3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노인복지 수요는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시설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고령화 추세를 여가복지시설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현실과 괴리감이 커지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를 방지할 경우 앞으로 출산율 하락과 맞물려 사회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화가 빨라지는 만큼 그에따른 대비책도 미리부터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열린마당

기초질서 지키기는 작은 일부터 시작됩니다



김상민
제주시 오라동주민센터

도로에 담배꽂초 버리기, 길거리에서 침 뱉고 담배피기, 무단횡단 하기, 주차장 위반 장소에 주차차 하기. 이 모든 행위들은 한번쯤 행한 적이 있거나 적어도 귀찮음에 해 볼 생각은 가져본 일일 것이다.

사실 심각한 위법행위도 아니다. '나 한명이 이런 일 좀 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작은 일들이다. 하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심각하다고 여기는 모든 일들이 이런 작은 일들과 크게 결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환경, 교통 문제는 한 명 한 명의 쓰레기 무단투기, 주차장

위반에서 시작 되는 일이다.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보기 위해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지는 것이 필요하듯 우리 사회의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일부터 기초질서 지키기를 통해 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공부도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듯이 우리 일상에서 기초질서 지키기를 행하는 것도 말만큼 쉽지는 않은 일이다.

제주시에서도 기초질서 지키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환경, 교통, 도로 세 분야로 나눠서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문화, 불법 주·정차 근절, 불법 노상적치물 근절을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모두의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에서 여는 행사와 홍보활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 한명 한명이 기초질서를 지키려는 의식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다.

나도 시민의 일원으로 오늘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았는지, 혹은 잠깐이라고 생각해 주차장 위반지역에 주차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겠다.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도, 대성호 사고 관련 지원 총력

실종자 가족 편의 제공도

○...제주도는 19일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대성호 화재와 관련 도청·시청이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신속대응을 천명.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기자회견을 방담해 구조·수색과 실종자 가족 지원을 위해 경남에 구성된 재난대책본부와 협업 체계를 구축키로 했으며, 실종자 가족이 제주를 방문 시 지원을 통해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소개.

또 어업지도선 2척을 사고 해역에 보내 수색에 협조하고, 도내 어선도 수색에 협조하도록 조치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약속. 조상윤기자

정 총재, 가짜 뉴스 심경 토로

○...정운찬 현 KBO총재(전 세계 7대자연경관 범국민추진위원장)가 세계 7대자연경관 추진과정서 불거진 가짜 뉴스에 대한 심경을 피력. 정 총재는 19일 '동북아환경수도 실현을 위한 제2회 2019 세계환

경수도 포럼'에서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조작된 행사라든가 수천억의 비자금 등 음해성 가짜 뉴스가 판을 쳤다"고 회고.

그는 이어 "한민족과 세계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제주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정당하게 선정된 만큼 이제는 타이틀 활용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 고대로기자

청소년 퀴즈 골든벨 개최

○...서귀포시가 '내가 바로 서귀포시 정책 책임자' 정책 퀴즈문제 공모'로 100문제를 선정해, 21일 지역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2019 청소년 퀴즈골든벨'을 개최.

공모는 서귀포시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 관심을 유도하고, 청소년 대상 퀴즈 골든벨에 활용하기 위해 시청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접수.

시 관계자는 "공모 최대 제안은 '차고지 증명제'였다"며 "문제 공모와 청소년 퀴즈 골든벨이 시 정책과 지역현황에 쉽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 문미숙기자

부고
고광수 아버지 제주고공 경훈(향년 83세)께서 서기 2019년 11월 19일 14시 0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2019년 11월 22일(금)
발인일: 2019년 11월 23일(토) 오전 8시 30분
장소: 부민장례식장 3분향실
장차: 양지공원→해안동선영
부인 양봉순
아들 고광수 며느리 한원호
대동 송현경
딸 고연희 사위 이종기
정희 한승우
윤희 홍선주
손자 고만부 외손자 한지윤
손녀 고주영 지훈
홍효석 찬석
* 연락처: 고광수 010-9960-2033
고대동 010-6691-4471
홍선주 010-4691-3725
한원호 010-8516-2856
고윤희 010-9458-3725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고공 하구(향년 68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1월 20일
부인 송성복(장)
아들 고석봉 며느리 장봉현
석기 박진희
딸 고현실 사위 남상조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폼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렛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010-3693-2000, 010-2696-9876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하귀농협장례식장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405 (노형에서 10분 거리)
노형에서 10분 거리
● 독립적인 5개의 고공객 분향실
● 독립적인 상주휴게실 및 편의시설
● 하귀농협직영 합리적인 장례비용
● 동시주차 500여대의 넓은 주차장
● 타 장례식장 대비 저렴한 식비 (6찬제공)
●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직영점 운영
● 노형에서 10분거리 (대중교통이용가능)
24시간 무/료/상/담/실/시 24시간/대기
T.798-8800